

담양군, 2024년도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입점상가사업설명회 개최

50여 개 입점 상가(농축산물, 공산품, 식당, 카페) 모집



담양군은 오는 24일 담빛농업관에서 내년 중 새롭게 문을 열 담양시장의 입점 상가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담양군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공사의 준공이 내년 3~4월로 예정됨에 따라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에서는 상가 입주 조건, 품목, 상가 운영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초 현대식 전통시장인 군산시장 운영 사례를 통해 향후 상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담양시장은 옥상을 활용하는 '루프탑가든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으며 1층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 40여 개와 2~3층은 먹거리 장터와 카페 등 8개 점포로 구성했다.

군은 경쟁력 있는 상가 모집을 통해 인근 죽녹원, 국수의 거리, 담주 예술구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된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시장 내 공간구획을 마무리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담양만의 특화된 상업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도시 전문 경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99% 만족'

화순군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만족도와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4,652명)와 수요처(89개소) 서비스 대상자(40명)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을 통해 1:1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자 99%, 수요처의 1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참여 어르신들 대부분이 생활비와 용돈 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83%)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후 노후생활의 경제적인 도움(71%)을 받고 정기적인 활동으로 신체적 건강개선(20%) 효과도 좋았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99.5%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를 희망했다.

또한 수요처의 만족도 조사 결과 기관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70%) 및 지역 사회발전 및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27%)의 응답이 높았다. 보육시설지원 수요처인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노인분들이 중요하고 고마운 분들임을 알게 해 주셨고, 노인분들의 능숙한 삶의 지혜를 관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사업 참여에 만족을 표했다.

군은 올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옥과택시, 치매기억택시 송영서비스 확대 시행 업무 협약

곡성군이 지난 10일에 치매안심센터와 옥과택시 간 '치매기억택시' 사업을 옥과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치매안심센터 부센터장을 비롯한 (유)옥과택시, 옥과개인택시가 1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택시 운행 요건 및 운영 구간 등을 논의했다.

또한 치매기억택시 운전자들은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하여 치매 친화적인 사회문화를 조성하고 치매안정망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곡성군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7월부터 '치매기억택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들의 집 앞까지 찾아가고 모셔다 주는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옥과 택시와의 협약은 '치매기억택시'의 운영 범위를 옥과권역 치매센터 프로그램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치매 대상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인 송영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송영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이 따로 없으며, 곡성군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지역 내 택시를 통해 치매 환자들이 돌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수 세지농협전무, 최정웅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 윤병태 시장, 이은상 세지농협조합장, 김병오 세지농협멜론공선출하회회장.

나주시, 세지농협멜론공선회·알곡영농조합 '대통령 표창'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서 '농업유통', '식량산업발전' 분야서 각각 수상

나주시 농업 발전과 대표 농산물 브랜드 육성에 힘써왔던 농업인들의 공로가 대통령 표창이라는 결실로 돌아왔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수원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 알곡영농조합법인 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나주 세지멜론은 전체 재배면적 62ha, 70여 농가에서 연평균 약 3200톤이 생산된다. 연평균 기온이 15도(°C)로 적당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멜론 재배에 있어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달콤한 향, 풍부한 과즙에 15브릭스 이상 단맛을 가진 상품용 유통·판매용 고품질 과일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2.5기작으로 재배하는데 특히 겨울 멜론의 경우 전국 생산량 약 80%를 차지한다.

세지멜론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공선시스템에 있다. 공선회원들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 정산 시스템으로 멜론 품질을 균일화하는데 힘써왔다.

농산물 GAP인증을 비롯한 우수 품종 발굴, 품종 규제를 통해 전국 최고 품질의 멜론을 유통했으며 지난해 3196톤 규모 멜론을 생산, 매출액 191억원을 달성했다.

2012년 결성된 세지면 소재 알곡영농조합법인은 식량산업발전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80여명의 발농가 회원이 공동경영체 시스템을 도입해 62ha에서 콩, 팥, 유채 등 식량작물 품질 균일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왔으며는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21년엔 나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Non-GMO(비유전자 변형 농산물) 유채유를 학교 급식에 공급하는 등 건강한 먹거리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날 시청사에서 세지농협 이은상 조합장, 김병오 멜론공선출하회장, 최정웅 알곡영농조합법인 대표 등과 만나 대통령상 표창을 축하했다.

윤 시장은 "제28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이 분야 최고 상훈을 수상한 세지농협 멜론공선출하회, 알곡영농조합법인 회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대통령 표창을 통해 나주농업 브랜드의 위상과 자부심, 농업 우수성을 드러내준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나주=기동채재본부

장성군 "재난안전 전문가에게 듣는 '안전 한국'의 길"

내일 21세기장성아카데미 송창영 광주대 교수 강연

16일 열리는 21세기장성아카데미에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맡는다.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인 송창영 교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정책자문위원, 재난안전사업평가 자문위원 등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송창영의 재난과 윤리'가 있다.

이번 강연에선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후 재난과 새로운 양상의 대형 안전사고가 건설안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소개한다. 이어서 사회·제도적 개선을 통한 건설안전 선진화와 사회 구성원 안전의식 고양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다.

장성=김수권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